

개막전 선발투수 · 올스타전 선발투수 · 이달의 투수상 · 사이영상 경쟁 · 평균자책점 1위

# 찬란했던 류현진의 2019시즌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경기 7이닝 무실점 기록

평균자책점, 2위에 여유있게 전체 1위(2.32)

애틀랜틱 리그 1위 · 한국인 최초 타이틀 홀더 확정



쿠어스필드의 악몽에도 류현진은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전 선발 등판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투수로는 1995년 노모 히데오(다저스)에 이어 24년만의 영광.

류현진은 7월 10일 열린 올스타전에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박찬호, 김병현(애리조나)에 이어 한국인으로 세 번째 올스타전 마운드를 밟아 그 중 최초로 무실점투를 선보였다.

올스타전 이후 다시 호투를 이어가던 류현진은 8월 12일 애리조나전 7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시즌 12승과 함께 평균자책점을 1.45로 끌어내렸다. 아시아 선수 최초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이 무르익던 시기다.

그러나 그 다음 4경기에서 류현진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8월 18일 애틀랜틱전 5이닝 4실점, 뉴욕 양키스전 4이닝 7실점(패전), 애리조나전 4이닝 7실점, 콜로라도전 4이닝 3실점. 그 사이 평균자책점은 2.45까지 치솟았다. 사이영상도 그렇게 멀어져 갔다.

류현진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평소와 하지 않던 등판 전 불펜피칭을 소화하고 머리를 염색하는 등 부진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난 15일 뉴욕 메츠전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결실을 맺었

다. 이어 23일 콜로라도전에서 7이닝 3실점 호투로 6경기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콜로라도전에서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7년만에 처음으로 홈런을 터뜨리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0-1로 끌려가던 5회말 선두타자로 등장에 안토니오 센자텔라를 상대로 베팅같은 동점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콜로라도전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따냈으나 평균자책점은 2.41로 다소 높아졌다. 경쟁자 디그롬이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2.43으로 수치를 끌어내리면서 류현진의 평균자책점 1위도 불투명해졌다.

1위 수성을 위한 경우의 수가 지났지만 기우였다. 1자책 시 2%이닝, 2자책 시 6%이닝 이상을 던져야 디그롬을 따돌리고 1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 류현진은 시원하게 7이닝을 실점없이 버티며 여유있게 타이틀을 차지했다.

꿈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었던, 한국인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는 장면을 류현진이 현실로 그려냈다. 사이영상 경쟁 또한 마찬가지. 현지 보도를 통해 표심이 디그롬을 향해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이영상이 아니라도 류현진의 올 시즌은 눈부실 정도로 훌륭했다.

뉴스1

## 피겨 이해인, 주니어 GP 2연속

### 금메달...김연아 이후 처음

피겨 이해인(14·한강중)이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진출했다.

이해인은 29일(한국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2019-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1.95점, 구성점수(PCS) 62.16점으로 합계 134.11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 69.29점을 합해 총점 203.40점을 받은 이해인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해인은 2회 연속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한국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5년, 2006년 김연아(은퇴)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해인은 이날 프리스케이팅(134.11점)과 총점(203.40점)에서 한국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여자 싱글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점은 지난해 김예림(16·수리고)이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얻은 프리스케이팅 130.26점과 5차 대회에서 얻은 총점 196.34점이었다.

이해인은 김연아(228.56점), 임은수(신학교·205.57점)에 이어 은수(신학교·205.57점)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여자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해인은 쇼트프로그램에서도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날 이해인은 자신의 프리스케이



피겨 이해인(14·한강중)이 29일(한국시간) 2019-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팅 프로그램 '피어어댄스'에 맞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프리스케이팅 7개 점프에서 모두 가산점을 받으며 끝낸 연기를 펼쳤고 스텝과 스피에서도 모두 레벨 4의 최고점수를 받았다.

2위는 다리야 우사체바(197.19점), 3위는 안나 플로로바(181.96점·이상 러시아)가 차지했다.

이해인은 경기 후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지난 3차 대회 때는 실수가 있어 아쉬웠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행복하다"며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서게 돼 영광스럽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여자배구 월드컵 최종전서 미국에 석패

### 6승5패 마감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여자배구월드컵 최종전에서 미국에 아쉽게 패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랭킹 9위)은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9 FIVB 여자배구월드컵 3라운드 3차전 미국(세계랭킹 3위)과 경기에서 세

트스코어 1-3(21-25 16-25 25-16

22-25)으로 졌다.

전날 강호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3연승을 달렸던 한국은 이날 미국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석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최종성적 6승5패로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됐다.

박정아(한국도로공사)가 팀 최다인 15점을 올렸고 김연경(액자시바시) 14점, 김희진(1BK기업은행)은 9점을 올렸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하군만**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